

농생명·전기안전 인재양성 교육 '호응'

전북대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전기안전공사 등과 연계교육... 창업 교육·이론·실습·수료학생에 2학점도 인정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단장 정용채)에 따르면 최근 농생명 분야 우수인재 양성 및 취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먼저 농생명실용화재단과 함께 6차 산업 발전을 이끌 농생명 ICT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한 '농생명 캠퍼스'에는 전북대와 원광대, 우석대, 전주대, 군산대 등 5개 대학 20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 과정은 산학협력과정으로, 창업계획서 발표를 통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시장 상사와 함께 수료 학생에 해당 대학 2학점이 인정된다. 이와 함께 사업단은 같은 기간 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전기안전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전기안전 청년창업캠프'도 진행했다. 이 교

육에는 전북대, 원광대, 우석대, 전주대, 군산대 등 전북지역 5개 대학 학생 40명이 참여, 전기안전공사 임직원이 강사진으로 나서 전기안전 관련 이론 교육, 전기 안전 검사·진단장비 활용 계측과 분석, 스마트 홈 실습 및 전기안전 창업 준비자를 위한 특강이 열렸다. 특히 늦은 시간까지 진행된 학생

들의 토론 및 발표준비를 위해 요청 학생들에게 교육장소인 전북대 혼산건지하우스에서 숙박이 제공됐으며, 이 교육 역시 창업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전기안전공사 연구원장상 시상과 수료 학생에게 현장학습 2학점을 인정해준다. 정용채 단장은 "지역 대학들에게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기관들과 손잡고 교육을 펼치고 있다"며 "지역의 우수 인재가 지역 발전을 이끌 산업 분야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교육활동이 온라인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학생들의 대면교육 수요 반영을 위해 철저한 방역조치 하에 운영됐다. 한편,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은 교육부 사업선정을 통해 국비와 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의 사업비 지원을 받아 이진공기관 관련 산업 인력양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장은성 기자

“헌혈로 이웃사랑 실천하세요”

전북교육청, 직원대상 헌혈·헌혈증 기부 진행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릴레이 헌혈 캠페인에 동참했다. 지난 8월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헌혈 행사를 진행, 헌혈증을 기부받았다. 릴레이 헌혈 캠페인은 전북 청림클러스터 7개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것으로 '제6회 온라인(溫·line) 청림누리문화제'의 일환이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혈액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생명나눔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취지다. 특히, 체력시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대비해 체온측정·마스크 착용·손 소독 실시 등 개인위생을 강화하고, 체혈버스 소독 작업에도 민전을 기함으로써 모두가 안심하고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기존 헌혈증도 기부할 수 있다. 기존 헌혈증 기부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로, 도교육청 8층 감사관실로 제출하면 된다. 각 기관별로 릴레이 헌혈 행사를 진행한 뒤 모아진 헌혈증은 8월 28일 청림클러스터 소속 기관인 전북대학교병원에서 기부할 예정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5월 전직원이 참여하는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갖고, 헌혈증 기부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공직자로서 생명나눔과 이웃사랑 실천에 솔선수범하고, 수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발명교사

교육센터 직무연수 실시

전주교육대학교(총장 김우영)는 오는 20일까지 '2021년 전주교대 발명교사교육센터'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지원하는 발명교사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에 선정돼 운영 중인 전주교육대학교 발명교사교육센터는 현재 교원을 대상으로 75시간 이상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 및 운영해야 한다.

연수과정은 발명·메이커 교육 기초(30시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코로나 극복 발명·메이킹프로젝트(30시간), 발명·메이커 교육 담당교사 역량강화 직무연수(15시간) 등 3개 과정으로 각 과정마다 30여 명의 초·중·고 교원 및 관련 전문직원들이 참여한다. 한편 이번 연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 연수와 오프라인 일부 연수로 운영된다. 김우영 총장은 "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 교사, 장학생, 등이 발명직무연수에 참여하고 있다"며, "발명교육 직무연수는 미래 사회에 걸맞게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교원의 발명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한층 더 신장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 교육

취업자 20일·전문가 과정 9월 24일까지 교육생 모집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전북대학교 신재생에너지소재개발지원센터(센터장 김종일)는 새만금 개발청과 전라북도, 군산시, 전북테크노파크 등의 지원을 받아 취업자와 전문가 과정으로 나눠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8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 간 취업자 과정을, 그리고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 간 전문가 과정이 진행된다. 이를 위해 전북대 신재생에너지소재개발지원센터는 20명 내외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재직자 및 경력자, 취업 희망자 및 예정자다. 한편, 교육 원하는 이의 접수는 신재생에너지소재개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newrec.or.kr>)나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홈페이지(<http://saemangum-job.or.kr>)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은 후 취업자 과정은 8월 20일, 전문가 과정은 9월 24일까지 이메일(info-newrec@jnu.ac.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이들 통해 기업에게는 양질의 인력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취·창업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관련 분야 고용시장까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일 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국내 태양광 산업을 이끌 전문인력을 키워내고, 수요자 맞춤형 지원 환경을 마련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는 만큼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찾아가는 어린이 교육연극 캠프' 운영

도교육청,임실초 등 5개교 연극체험...어린이들 자신감·표현력 강화 '기대'

전북도교육청이 찾아가는 어린이 교육연극 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4일 임실초등학교를 시작으로 9~10일 고창흥덕초등학교, 12~13일 김제초등학교·이리부송초등학교, 17~18일 전주 우림초등학교 등을 선정해 연극과 아름다운 상상력을 주제로 찾아가는 어린이 교육연극 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캠프는 전북교육연극연구회와 전주교대 대학원 교육연극 전공 교사들이 참여, 아이들이 연극 체험을 통해 예술로서의 연극을 경험하고 자신감과 사고력, 창의적 표현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교육연극에서 쓰이는 연극기법은 상황에 몰입하고 객관적으로 반성하는 과정을 통해 지식을 깊이 있게 배우고, 타인에 대한 이해를 도와 대인관계 역량을 키우는 데도 효과적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마음을 여는 자기 소개 및 인사 ▲상대방과 교감을 위한 연극놀이 ▲음직임과 정지장면 표현 ▲마음을 활용한 연극놀이 ▲감정을 조각 상으로 표현하기 ▲그림과 이야기속 인



물 표현하기 ▲나의 경험 연극으로 만들기 ▲연극 발표 및 관람 후 이야기 나눔 등이다. 찾아가는 교육연극 캠프는 각 학교 다목적실에서 1일 4시간씩 진행되며, 2일간 도보 및 스쿨버스를 이용한 등하교형 캠프로 운영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아이들이 종합 예술교육인 연극을 체험하면서 상상력과 창의성 개발 및 탐구능력을 키우게 될 것"이라며 "교육매체로서의 연극을 통해 서로 간의 공감대 형성과 감성 및 소통 능력을 키우고, 나아가 연극 교육의 활성화로 재미있고 창의적인 교실 수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초등교사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역량 강화 연수

전주교육대학교가 오는 10일까지 초등교사의 SW교육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대학 교사교육센터 일원에서 실시되는 이번 연수는 초등 교사 총 8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SW교육 필수화에 따라, 초등교사의 지도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SW교육 초등교사 역량강화 연수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 블록 기반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인플러그드 활동, 피지컬 컴퓨팅 연수, AI의 이해와 활용 등의 내용으로 구성, 교

사들이 인공지능 개념 이해 및 수업 적용 능력을 키우는데 역점을 뒀다. 연수과정은 기초과정(1기·3기)과 심화과정(2기)으로 분기 운영하며, 총 84명의 초등교사가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 교육의 기회를 얻게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